GWANGJU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MARCH 2017
www.gwangjufc.com

PREVIEW
2017년, 광주FC 최고의 성적 노린다

MANAGER
남기일 감독, "올해도 6위 도전"

NEWCOMERS
광주FC의 새로운 활력소 4인방

문화체육관광부 KSPO
※ 이 책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광주FC

팀 창단 최고의 성적을 노린다

광주FC에 있어 2016년은 영광의 한 해였다. 광주는 지난해 K리그 클래식에서 8위의 성적을 거뒀다. 8위라는 성적이 얼마나 대단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광주에 있어 8위라는 성적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2011년 K리그에 참가한 이래 최고 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광주는 지난해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려 한다. 올해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에 목표로 삼았으나 이루지 못했던 6위권 진입으로 스플릿 라운드 그룹A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K리그 클래식은 팀 당 33경기의 정규 라운드를 치러 1위부터 6위까지는 그룹A, 7위부터 12위까지는 그룹B로 편성돼 5경기를 더 치른다. 이 5경기가 스플릿 라운드다. 그룹A는 우승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놓고 싸운다. 그룹B는 반대로 K리그 챌린지 강등을 면하기 위한 사투를 벌인다.

지난해 광주는 11승 14무 13패로 아쉽게 그룹A행 티켓을 놓쳤다. 스플릿 라운드를 하기 전 단 승점 1점 차이로 그룹A와 B가 결정됐을 정도였다. 많은 무승부가 영향을 끼친 것이다. 14번의 무승부 중 1~2번만 이겼어도, 광주는 그룹A에 포함됐을 것이다.

무승부를 줄이려면 확실한 승리가 필요하다. 지난해 광주는 20골을 넣은 정조국을 앞세워 공격했다. 그러나 올해 정조국은 강원FC로 이적해 최전방에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 광주에 위기가 될 수 있으나 역으로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조주영, 나상호 등 젊은 공격수들이 날카로운 칼을 갈며 시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정조국 외에도 주요 선수들이 이적, 군입대 등으로 팀을 떠났다. 그렇지만 실력 있는 젊은 선수들이 즐비하다. 특히 전북 현대에서 영입한 이한도, 이우혁과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온 정영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여기에 확실한 골문을 지킨 윤보상이 한층 노련한 플레이로 광주의 골문을 지킨다. 빠진 선수의 자리는 새로운 선수들과 기량을 키운 젊은 선수들이 충분히 메울 전망이다.

광주는 승격팀 대구FC를 개막전에서 만난다. 그러나 이후 상대는 포항 스틸러스, FC서울 등으로 이어진다. 쉽지 않은 상대와의 맞대결이 이어진다. 그렇기에 대구를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둬 기분 좋은 출발을 해야 한다.

올해 팀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이 밑거름이 된다.

“올해도 6위 목표로 도전한다”

지난해 광주FC는 팀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K리그 클래식 8위라는 성적은 항상 하위권에 처져있던 광주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숫자였다.
광주가 좋은 성적을 거둔 데에는 남기일 감독의 존재가 컸다. 2011년 코치로서 광주와 인연을 맺은 남기일 감독은 수석코치를 거쳐 2014년에는 감독대행으로서 팀을 지휘하며 클래식 승격을 이끌었다. 2015년 정식 감독이 된 그는 2년 연속 클래식 잔류라는 성과를 냈다.
부임 후 최고의 성과를 낸 남기일 감독이지만, 여기서 만족할 생각이 없다. 그는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적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의 성과를 통해 얻은 자신감을 무기로 8위를 넘어 클래식 그룹A 진출을 위한 6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

2017시즌이 개막한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처음은 항상 어렵게 시작한다. 선수들도 많이 나간다. 주축 선수들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군입대와 이적을 통해서. 새로운 선수와 새로운 시즌을 맞이한다. 처음 어렵게 시작하지만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마무리 되니까 이탈하는 면은 내성이 생겼다. 경험이 있어서 슬기롭게 팀을 만들려 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선수들이 와서 기대된다.

겨우내 영입했던 선수들은 만족하는가?
스타를 데려올 수 없다. 빛을 보지 못한 선수를 찾고 있다. 이우혁은 강원에 있을 때 상대를 했기에 꾸준히 지켜봤다. 이한도도 대학에서 지켜봤다. 정영총은 제주와 경기를 할 때 좋은 선수라는 걸 알게 됐다.

동계 전지훈련의 성과는 어떠했는가?
포르투갈 전지훈련의 성과는 좋았다. 경기장 상태가 좋았다. 부상 선수가 한 명 있었지만, 처음과 생각보다 지금은 더 잘했다. 나중에 또 가고 싶을 정도다. 선수들도 지난해보다 훈련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좋았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직력도 마찬가지다.

포르투갈 전지훈련에서 조주영의 활약이 좋았다. 1~2년 차 젊은 선수 활약을 평한다면?
기존 선수들은 여유가 생겼다. 새로 영입한 선수들과 녹아 든 것이 좋았다. 찬스를 만드는 점이 돋보였다. 마무리는 부족한 게 아쉽다. 열심히 잘 하고 온 것 같다.

유럽 강호인 벤피카, 샤흐타르 등 친선경기 상대는 만족했나?
유럽을 처음 나가는 선수들이 많았다. 경험을 쌓은 건 좋았다. 기존 선수들도 자주 접하지 못했기에 더 의미가 있다. 유럽 좋은 팀들과 대결하면서 느끼는 게 많았을 것이다. 피지컬에 압도 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압도하는 경기가 많아 도움이 됐다.

개막전 상대인 대구전의 전력은 어떻게 보는가?
조직력은 좋을 수 있다. 2년 전 우리와 마찬가지로 잘 뭉쳤는데, 무시를 못할 것 같다. 자신이 있으니까 영입이 적었을 것이다. 대구가 챌린지에서 그대로 올라왔으니 경기 스타일은 비슷할 것이다. 대구의 플레이를 많이 보고 전략을 연구할 것이다. 공격에서 다양한 패턴을 훈련했다. 선수들과 전략을 세워 준비를 잘 할 것이다.

광주가 창단 후 지난해까지 전북, 포항은 이겨본 적이 없는데?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우리가 상주에 강하다. 지지 않은 팀도 있었다. 서로 물고 물리는 경기를 한다. 올 시즌에는 지난해 이겨보지 못한 팀을 승리하고 싶다. 두 팀을 넘어서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올해 목표도 6위권 진입인가?
지난해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4경기에서 1경기를 이겼으면 됐다. 신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준 것 같다. 아쉬움이 컸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새로 가세한 선수들이 많다. 지난해 보다 더 좋은 선수단을 가지고 도전하겠다.

광주 맏형
이종민

“잔류가 아닌 6위 이상이 목표”

광주FC의 맏형인 이종민(34)은 존재만으로 든든하다. 젊고 패기 넘치는 광주의 든든한 거목인 그는 올 시즌 창단 이후 이루지 못한 6위권 진입을 위해 힘을 보태려 한다. 특히 풍부한 경험과 좋은 기량을 유지 중인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종민은 광주에서 큰 버팀목이지만, 외로울 때가 있다. 팀 내에서 이종민을 제외한 30대 선수는 없다. 나이 차가 많은 후배들과 먼저 어울리려 하지만, 세월의 힘과 세대 차는 어쩔 수 없다. 이종민은 “후배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걱정된다. 괜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다. 하루는 (조)성준이가 입단연도를 물어보길래 2002년이라고 하니까 놀라더라. 그 시기이면 후배들이 축구를 시작할 때인데”라며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아직 경험이 적어 쉽게 흔들리는 후배들의 든든한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몸 관리 면에서 후배들에게 “부상 조심하자”고 많은 조언을 할 정도다. 이종민은 “어린 선수들이 아프면 감독님 눈 밖에 벗어날까 봐 걱정한다. 지난 1월 광양 전지훈련에서 김시우가 참고 뛰는 걸 보면서 안타까웠다. 열심히 하되 서로 보호하면서 뛰자고 강조한다”며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9일까지 포르투갈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창단 후 첫 유럽 전지훈련을 가진 광주는 벤피카, 명문 팀과 친선전을 치렀다. 수준 높은 유럽 축구과 부딪히면서 한계를 느꼈지만, 발전을 위한 과제를 얻은 동시에 경험을 쌓은 건 큰 소득이다. 이종민은 “계획대로 잘 됐다. 포르투갈까지 멀리 떠나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환경과 운동 여건도 좋았다. 단체 운동은 물론 선수들 개개인 훈련까지 준비가 잘됐다”라고 만족했다.

지난해 광주는 창단 이후 최고 순위 8위는 물론 최다 승점과 승리를 이뤄내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또한 2년 연속 K리그 클래식 잔류라는 성과도 이뤄내며, 광주 축구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6위까지 주어지는 그룹A 진출이다. 지난해 정규 라운드 마지막까지 그룹A 진출을 위해 싸웠지만, 아쉽게 그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아쉬움을 털어내려 한다. 날이 갈수 팀 조직력은 단단해지고, 자신감이 쌓이면서 목표 달성 전망은 밝아지고 있다.

이종민은 6위 내 진입을 자신했다. 그는 “선수단 변화가 적지 않았음에도 팀이 빨리 안정됐다. 무엇보다 젊은 선수들이 팀에 빠르게 녹아 들어가고 있어 만족스러웠다”며 “우리의 목표는 잔류가 아닌 그룹A 진출이다. 클래식 11개 팀을 상대하는 건 쉽지 않지만, 실력 차는 크지 않다. 이제 선수들 모두 클래식에서 뛰는 자부심도 있고, 강팀을 만나도 긴장하지 않는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광주FC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4인방

2017년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광주FC. 시즌을 준비하면서 광주의 전력을 업그레이드할 선수들을 영입했다.
올 시즌 광주의 공격을 책임질 이들의 활약을 주목하자.

이우혁

No.8 MF

1993.02.24 184cm/69kg

K리그 통산

82경기 3득점 11도움

청소년 시절 각급 대표팀을 두루 거친 전천후 미드필더다. 올해 24세지만 80경기 넘게 경기를 뛰었을 만큼 경험이 풍부하다. 발 기술이 좋아 정확한 패스를 펼치는 선수다. 군입대한 여름의 공백을 메울 자원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나상호 신인

No.13 FW

1996.08.12 173cm/70kg

K리그 통산

0경기 0득점 0도움

광주가 키운 '광주의 아들'. 단국대를 거쳐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작은 키지만 기술과 스피드를 갖춘 공격수다. 고교, 대학에서는 득점력까지 갖춘 공격수로 평가 받았다. 발전 가능성이 커 올 시즌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이한도

No.20 DF

1994.03.16 185cm/80kg

K리그 통산

0경기 0득점 0도움

지난해 전북 현대에 입단했지만 주전 선수들에게 가려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기에 광주에서 더욱 다부진 각오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측면 수비수지만 최전방 공격수까지 모든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2015년 용인대를 U리그 우승으로 이끌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정영총

No.22 FW

1992.06.24 180cm/70kg

K리그 통산

30경기 1득점 0도움

2015년 제주에서 데뷔했고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 유니폼을 입었다. 탁월한 스피드와 예리한 돌파력을 갖춘 공격수. 경기장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동계훈련 동안 득점력도 보완해 올 시즌 맹활약이 기대되는 공격수다.

경험과 조직력 끌어올린 광주의 포르투갈 전지훈련

광주FC가 팀 창단 후 처음으로 유럽 전지훈련을 했다. 유럽 축구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포르투갈에서 전력을 다진 광주는 2017년 도약을 위해 많은 소득을 얻고 돌아왔다.

광주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9일까지 4주간 포르투갈에서 전지훈련을 했다. 포르투갈 전지훈련 4주 동안 실전 경험 향상과 조직력 강화를 두고 진행했다.

가장 큰 소득은 유럽 명문팀과의 경기를 통한 경험 축적이다. 광주는 포르투갈 명문 벤피카와 우크라이나 명문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붙는 등 포르투갈에서 7경기를 치렀다. 결과는 1승 2무 4패로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결과를 떠나 광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했고, 더불어 젊은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포르투갈 전지훈련 동안 가장 돋보인 선수는 2년차 공격수 조주영이다. 조주영은 헝가리의 데브레첸을 상대로 골을 넣으며 승리를 이끄는 등 전지훈련 기간 동안 2골을 넣었다. 지난해 20골을 넣으며 광주 공격을 이끈 정조국의 강원FC 이적으로 걱정이 많았던 최전방 공격진에 희망을 불어 넣었다.

그 외에도 벤피카전 골과 함께 1골 1도움을 기록한 일본 출신 미드필더 와다와 신인 듀오 이중서와 이순민의 맹활약, 이적생 정영총까지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선보였다. 이를 지켜보는 남기일 감독 입장에서 큰 힘이 되는 건 당연했다.

더구나 광주는 1차 광양전지훈련부터 선수단 대부분이 참가해 호흡을 맞췄고, 포르투갈 전지훈련에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이탈자 없이 훈련을 소화해 냈다. 이는 조직력을 더 단단히 갖추는데 큰 힘이 됐다. 남기일 감독은 "조직력에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며 만족할 정도다.

그러나 시즌 개막을 앞두고 과제도 있었다. 수준 높은 명문 팀과 대결했기에 약점은 확실히 드러났고, 이는 광주가 올 시즌을 준비하면서 풀어내야 할 숙제다.

남기일 감독은 "골 기회를 만들어가는 건 좋았지만, 결정력이 부족했다. 피지컬에서 밀리는 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압도하는 경기가 많았고, 선수들 열심히 잘 하고 온 점에서 만족한다"라며 포르투갈 전지훈련이 약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GWANGJU FC MATCH SCHEDULE 2017

3 MAR

04(토)	15:00	vs 대구FC(홈)
12(일)	15:00	vs 포항스틸러스(원정)
19(일)	15:00	vs FC서울(원정)

4 APR

02(일)	15:00	vs 제주유나이티드(원정)
08(토)	15:00	vs 울산현대(홈)
16(일)	15:00	vs 수원삼성(원정)
23(일)	15:00	vs 상주상무(원정)
30(일)	15:00	vs 전북현대(홈)

5 MAY

03(수)	15:00	vs 강원FC(홈)
07(일)	15:00	vs 전남드래곤즈(원정)
13(토)	15:00	vs 인천유나이티드(홈)
21(일)	19:00	vs 포항스틸러스(홈)
27(토)	19:00	vs 제주유나이티드(홈)

6 JUN

17(토)	19:00	vs 대구FC(원정)
21(수)	19:00	vs 수원삼성(홈)
24(토)	19:00	vs 전남드래곤즈(홈)
28(수)	19:30	vs 강원FC(원정)

7 JUL

01(토)	19:00	vs 인천유나이티드(원정)
09(일)	19:00	vs FC서울(홈)
12(수)	19:00	vs 상주상무(홈)
15(토)	19:00	vs 울산현대(원정)
19(수)	19:00	vs 전북현대(원정)
22(토)	19:00	vs 전남드래곤즈(홈)

8 AUG

02(수)	19:30	vs 포항스틸러스(원정)
05(토)	19:00	vs 수원삼성(홈)
13(일)	19:00	vs 대구FC(홈)
19(토)	19:00	vs 전북현대(원정)
27(일)	19:00	vs 울산현대(홈)

9 SEP

01(토)	19:00	vs 인천유나이티드(원정)
09(일)	19:00	vs FC서울(홈)
12(수)	19:00	vs 상주상무(홈)
15(토)	19:00	vs 울산현대(원정)
19(수)	19:00	vs 전북현대(원정)
22(토)	19:00	vs 전남드래곤즈(홈)

10 OCT

1(일)	15:00	vs 제주유나이티드(원정)

*스플릿 라운드 일정은 10월 1일 이후 결정

“희망의 2017”

새롭게 도약하는
광주FC가 되겠습니다.

GWANGJU FC 2017 SQUAD

감독 남기일

1974.08.17

수석코치 이정효

1975.07.23

코치 마철준

1980.11.16

골키퍼 코치 기우성

1978.06.17

피지컬 코치 프랭클린

1987.03.30

1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2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3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4 DF 홍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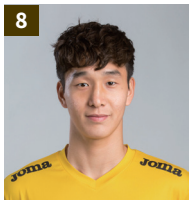
1993.10.11 192cm/85kg

5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6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8 MF 이우혁

1993.02.24 184cm/69kg

11 MF 조성준

1990.11.27 176cm/67kg

13 FW 나상호

1996.08.12 173cm/70kg

14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15 DF 이순민

1994.05.22 178cm/72kg

16 FW 송승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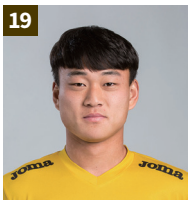
1992.01.11 187cm/77kg

17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18 DF 정동윤

1994.04.03 175cm/70kg



19 FW 이중서

1995.06.09 175cm/73kg

20 DF 이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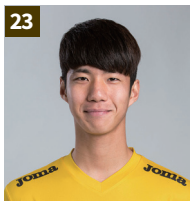
1994.03.16 185cm/80kg

21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22 FW 정영총

1992.06.24 180cm/70kg



23 MF 김민혁

1992.08.16 183cm/71kg

24 MF 임대준

1994.05.04 177cm/70kg

25 DF 황인혁

1995.05.06 191cm/77kg

26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27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30 DF 김지수

1994.08.16 177cm/70kg

31 GK 윤평국

1992.02.08 189cm/85kg

33 MF 와다

1994.10.30 170cm/60kg

34 MF 본즈

1990.02.07 187cm/80kg

40 DF 정호민

1994.03.31 188cm/79kg

41 GK 박형민

1994.04.07 189cm/80

광주FC SNS 채널 @GWANGJU_FC www.facebook.com/gjfc2010/ plus.kakao.com/home/@광주축구